

建軍 50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며

금년 은 우리 국군이 탄생한지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광복을 되찾은 이후 나라없는 민족의 쓰라린 체험을 되새겨 조국의 국권을 옹호하고 국토를 방위할 국방력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創軍된 우리 국군이 어느덧 반세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軍은 창군한지 2년도 못 되어 북한의 침공으로 발발한 한국전쟁시에는 열세한 병력과 미약한 장비로써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켰으며, 휴전후에도 크고 작은 적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국가방위의 소임을 완수하였습니다.

이제 현대 국방조직으로 면모를 일신한 우리 軍은 월남전, 걸프전, 평화유지군 파병 등 선진 막강 국군으로 성장하였으며 우리 국군의 位相을 전세계에 드높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北韓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赤化野慾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希求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제반정책에도 불구하고 동해상 잠수함 침투, 병력의 휴전선 전진배치, 사정거리 2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1호, 2호」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무력도발을 여전히 劃策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70년대초 시작한 이래 우리 군이 소요로 하는 재래식 기본병기를 국산화하였으며, 고도 정밀병기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가안보의 礎石으로서 一翼을 담당해 왔습니다.

현대전은 과학기술전으로서 첨단병기가 전쟁의 勝敗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방위산업의 육성은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는 要諦이며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강대국 틈에서 자주적 안보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捷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해 총체적인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부는 「제 2의 건국」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도 이 累卵의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폐허속에서 재기할 수 있었던 지난날의 국민 정신을 되살려 근검절약하고 국익을 우선시해야 하겠습니다.

건군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軍도 국민의 信望을 받는 「국민의 군대」답게 다시한번 재도약해서 국가안보의 보루로서 튼튼한 국방을 具現하리라 굳게 믿으면서 전후방 각처에서 국가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 여러분의 健勝과 武運長久를 기원합니다.



裴 一 成
韓國防衛産業振興會
常勤副會長